

## 약국실무실습에 대한 약학대학 재학생 인식

김성은 · 조은\*# · 정규혁\*\*

대한약사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성균관대학교 약학부  
(Received April 11, 2011; Revised April 27, 2011; Accepted May 4, 2011)

### The Perception of Pharmacy Students on the Educational Clerkship in Community Pharmacies: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New Pharmacy Curriculum

Sung Eun Kim, Eun Cho\*# and Kyu Hyuck Chung\*\*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Seoul 137-869, Korea

\*College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102-752, Korea

\*\*College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erception of pharmacy students (n=92) toward educational clerkship in community pharmacie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perceived the need for clinical pharmacy practice-focused education. Students had a strict criterion for the eligibility of preceptors and a strong preference toward a large scale of hospital-nearby pharmacies for a practice site. Students with a previous training experience tended to hold negative opinions on the necessity of practice guidelines. To settle down community pharmacy practice system, students' needs and expectations should be considered.

**Keywords** □ pharmacy practice, community pharmacy, pharmacy internship

약사의 역할은 현대 보건의료시스템의 요구에 발맞춰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직으로서의 약사의 역할 변화는 사회 시스템 및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미래의 약사가 될 약대생의 기본교육 및 현직 약사의 재교육의 변화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sup>1)</sup> 우리나라도 임상 능력을 겸비한 전문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약학교육의 교과과정 변화를 단행하고,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6년제 학제 하에서 약국, 병원, 제약회사,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실습을 약학교육 교과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약사 역할 변화에 따른 약학교육의 개선 및 약대생 실무실습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약국 약사의 업무가 의료기관 외래 방문환자에 대한 처방조제(부작용, 상호작용 검토 등), 복약지도, 매약 등으로 변화되고, 취급의약품 수도 분업이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의약분업 구조 속에서 환자에게 안

전한 투약관리와 충실한 복약지도, 그리고 복약 후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약학교육의 개선, 특히 실무실습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sup>2)</sup> 임상약학 교육 및 실무 실습 필요에 대한 주장은 의약분업 전에도 있었는데, 약국 약사의 경우 환자를 직접 대하고 일차 보건의료담당자로서의 기회와 책임감을 가지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임상약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료 서비스 제공자(pharmaceutical care giver)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개국 약사들의 비판이 있었다.<sup>3)</sup>

약학대학 교과과정의 문제는 오즈킨설링(2004)이 수행한 약대학제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약사 수행직무 및 수행요건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약국 및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의약품을 환자, 또는 약국 방문자에게 전달하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들의 무지나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약대생 교과과정의 커리큘럼 구성 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4)</sup>

병원에 신입으로 입사하는 약사의 역량 평가 연구 결과에서는, 병원약국에서 필요한 8개 과업(환자정도 및 약력관리, 처방전 검토, 조제, 조제실 제제, 주사제 무균조제, 조제감사, 투약, 복약지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에게로  
(전화) 02-2228-1525 (팩스) 02-392-7734  
(E-mail) euncho@yuhs.ac, echomesmer@gmail.com

도)에 대하여 신입약사가 조제실에서 3개월간 수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제임무를 맡길 수 없으며 선배약사가 함께 일을 하면서 일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어야 하는 수준이라고 나타났다.<sup>5)</sup> 이는 약학교육이 최소한 사회가 약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약사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약학교육은 이제까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 입사하는 신입약사들은 그나마 종합병원의 교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전문화된 선배 약사들로부터 코칭을 받고, 병원의 약물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약국의 새내기 근무약사의 경우는 체계화된 실무 교육 없이, 선배약사로부터 틈틈이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학습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설립운영기준이나 대교협 평가기준에 의하면 약학대학에 실습약국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각 약학대학에서 대부분 실습약국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약국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약국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은 전무하여 실질적인 현장실습의 장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2)</sup> 우리나라 약학대학 재학생이 약사(藥事)를 수행하고 있는 약의 적용에 관한 학문과 이를 위한 실무수련이 결여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연구에서는, 약국에서의 인턴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참가 인원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약국 실습교육은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 그 형식 및 내용이 각기 다르며, 제도적 체계의 일관성 부족으로 때로는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sup>6)</sup>

1999년 약학대 학장 및 개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약학 교과과정의 개국약국실습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 약국실습 목적은 '약국실무습득', '전문성 인식', '임상서비스 습득', '의사전달 기술 습득', '약국 경영기술 습득' 순으로 조사되었다.<sup>6)</sup> 실무 실습의 지도자 선정기준으로는 '약사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답하였으며, '도덕성', '충분한 실무경험', '임상서비스 수행능력' 순으로 조사되었지만 '연수교육 참가', '직위', '학술단체참가' 그리고 '학위'는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다.<sup>6)</sup> 적합한 실습약국 형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36.7%)'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실습장소의 선정기준으로는 다양한 약품구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sup>6)</sup>

최근 약학대학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약사직무분석의 지식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총 32개의 지식을 약사양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필수지식과, 필수지식을 토대로 기술과 태도를 익히기 위한 필수 실무실습과 심화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도출, 제시하였다.<sup>7)</sup> 이 연구에 따르면, 필수실무실습은 모든 약학대학생이 이론교육 이수 후 약사로서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지식과 경험을 의료현장

에서 제공하는 실습으로, 실습분야는 약국과 병원(의료기관), 제약 산업 및 의약품행정기관으로 구분되며, 이 중 약국 실습은 약국 실무실습I(Community Pharmacy Practice Experience I, CPPE-I), 약국 실무실습II(Community Pharmacy Practice Experience II, CPPE-II)로 나누어져 있다.<sup>7)</sup> 심화실무실습은 필수실무실습을 이수한 학생에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상약학 실무실습 트랙(track), 제약산업 실무실습 트랙, 약학연구 실무실습 트랙 등의 3가지 트랙 중 학생이 전문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상약학 실무실습 트랙은 약국 실무실습(Community Pharmacy Practice, CPP)과 병원 실무실습(Hospital Pharmacy Practice, HPP)으로 구성되어, 실습 학생들은 약국 또는 병원에서 약사로서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약물요법과 관련한 임상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에서 지정한 약국에서 지도교수 또는 실무강사(preceptor) 지도하에 실습하는 것을 제안하였다.<sup>7)</sup>

한국연구재단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에 걸쳐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2+4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비한 실무실습 관련 제반사항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1차년도 연구를 통해 실무실습 장소(site) 별 실습지침서가 마련되었고, 2차 년도에는 동 실습지침서를 활용하여 실무실습 교육장소별 실무실습이 진행되었다.<sup>8)</sup> 시범사업 결과 약국의 경우 약국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정해진 실습지침서대로 교육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sup>8)</sup> 예를 들어, 처방전 접수 및 검토(91.7%)와 처방조제 및 검토(91.7%)는 90% 이상의 실습 참여자가 실습지침서대로 수행되었다고 평가하여 우수한 수행 정도를 보였으나, 30% 미만의 참여자가 약국 운영 관리(22.2%), 인력관리(27.8%), 복약지도 사후관리(25.0%)에 대한 내용이 실습지침서대로 수행되었다고 하였고, 40% 미만이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33.3%), 일반의약품 복약지도(30.6%), 의료인과의 대화(38.9%), 복약지도 수행(38.9%)에 관해 실습지침서대로 수행하였다는 등, 테크니컬한 조제 업무 외의 약국 업무에 관한 실습항목을 수행하는 일이 매우 부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8)</sup>

앞으로의 약학대학 재학생 실무실습은 약대생의 임상능력을 향상시키고, 졸업 후 별도의 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상 약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4년제 체제 하에서의 약학대학 커리큘럼 보다 임상 및 실무 실습 관련 과목이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강의로 습득한 지식과 이론이 실무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임상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약대생 실무실습에 대한 기준 마련과 실무실습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면 자칫 실무실습이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비체계적이고 졸업을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는 결과

를 조래할 것이다.

특히, 약국에서의 실무실습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약사의 역할로 비추어 볼 때,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의 약대생 실무실습이 조기 정착되고, 실무실습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무실습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표준화된 기준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실무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와 학계 그리고 관련단체 등은 약대생의 성공적인 약국 실무실습 시행을 위해 실무실습 프로그램 마련, 실습지침서 제작, 실무강사와 실무실습 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현재 약학대학 재학생들의 실무실습에 대한 인식, 태도 및 그들이 실무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대사항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기대하는 실습기관의 기준, 실습강사의 조건, 실습지침서의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마련된 실무실습 제도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교육제도가 아닌 임상능력을 갖춘 약사 배출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약국 실무실습의 다음 두 가지에 대한 현재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실습요건에 대한 기대: 실습생실무강사실습약국의 자격기준 및 실습환경의 요건에 대한 기대와 필요를 조사한다.
- (2) 실습지침서 및 실습항목에 대한 가치 평가: 표준화된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지침서 개발의 필요성과 실무실습 시범사업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습지침서에서 제시하는 실습항목에 대한 인식상의 가치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 연구방법

#### 예비조사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 설문 조사 대상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연구의 약국 실무실습 참여한 실습생, 실무강사, 실습지침서 교안작성자와, 예비 조사 연구 대상자 각각에게 우편,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로 예비 조사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예비 조사 연구 대상자 또한 응답지를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설문지를 송부한 날로부터, 10일 뒤 설문 조사 응답을 독촉하는 알림(reminder)을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냈고, 이후 2주일 내에 도착한 응답지까지 수거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예비조사 연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국 실무실습 시행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기 약학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한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전체 학생으로 선정하였고, 설문 기간은 2010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으로 방문조사를 하여 자기 기입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지를 수집하였다.

#### 연구 도구

연구대상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내용은 약대생 실무실습에 대한 선행연구 및 '6년제 약학대학 시행관련 2+4 교육과정의 실행단계 시범운영 연구'에서 개발된 실습지침서(교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그 후, 예비조사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응답률이 저조한 문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실습생, 실무강사, 실습지침서 교안 작성자간에 서로 상반된 응답을 보였던 매끄럽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 보완되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 내용은 (1) 응답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2) 약국 실무실습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3)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생 자격기준 조사, (4)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강사 자격기준 조사, (5)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약국 기준 조사, (6) 약국 실무실습 실습지침서에 대한 설문조사 등 6개 분야로 구성하였다.

분야별 세부문항으로서 (1) 응답자의 인적사항은 성별, 학년, 실습 경험 여부, 약학대학 입학/편입 전 타 전공 경험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2) 약국 실무실습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관련 문항은 약학 교과과정에 실무실습의 필요 여부와 실무실습에 대한 참여의사 등이고, (3)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생 자격기준 조사 관련 문항은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생 자격기준 마련 필요여부, 자격부여 방법, 사전교육의 필요성 등이며, (4)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무강사 자격기준 관련 문항은 실무강사 자격기준 마련 필요여부, 자격기준 부여방법, 실무강사 교육 및 관리 주체기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5)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약국 기준 관련 문항은 실습약국 자격기준 마련 필요여부, 실습약국 자격기준, 실습약국 구분의 필요여부와 구분 기준, 약대생들이 선호하는 실습약국 형태 등으로 구성하고, (6)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지침서 관련 문항은 실습지침서 마련의 필요성, 실무실습 항목의 타당성 평가, 실습항목의 이행 가능성, 실습약국 여건 상 이행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한 해결방안, 실습항목 중 강의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내용 중 필요성과 만족도, 타당성 등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매우 필요(만족;타당)하지 않음"; "필요(만족;타당)하지 않음"; "보통"; "필요(만족;타당)함"; "매우 필요(만족;타당)함"과 같이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7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SPSS(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각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과 같은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끼리 교차 분석을 하여, 질문의 특성 별로 상관성이 보이는 변수들을 검증하였다. 샘플 사이즈가 작아서 교차 분석이 어려운 경우는( $\chi^2$  테이블의 셀의 빈도수가 5 이하), 5점 척도를 이용한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는 "그렇지 않다=1"로 새로운 변수로 코딩하고, '보통=3'은 "보통=2"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는 "그렇다=3" 등으로 새로운 변수로 코딩시켜 분석하였다.

실습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질문의 경우 '매우 타당하지 않음=1'은 1점, '타당하지 않음=2'는 2점, '보통=3'은 3점, '타당함=4'는 4점, '매우 타당함=5'는 5점으로 각각 점수화하여 38개의 실습항목 타당성 문항의 모든 점수를 더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수준 p-value는 0.05 이하로 하였다.

## 연구결과

### 예비조사 결과

예비조사의 설문조사지는 실습생 39명, 실무강사 28명, 교안 작성자 9명에게 보내졌으며, 총 34명으로부터 회수되었다(응답률 45%). 총 34명의 응답자 중, 실습생, 실무강사, 교안작성자가 각각 16명, 11명, 7명이었으며 이들의 응답지에서 답변이 없었던 질문이나 다른 상관 질문과 비교하여 일관된 답변이 제시되지 못했던 질문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 응답률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설문 조사의 대상자 130명 중 9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총 92명 중 남자는 42명(45.7%), 여자는 50명(54.3%)이었고, 3학년이 53명(57.6%), 4학년이 39명(42.4%)이었다. 설문대상자 중 실무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은 32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했으며, 약학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기 전 타과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7명으로 7.6%를 차지했다.

### 약국 실무실습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약학 교과과정 중 약국 실무실습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1명(77.2%)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약국 실무실습 시행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8명(73.9%)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여 약국 실무실습 시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생 자격기준

약국 실무실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실습 약대생의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6명인 71.74%가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실습생에 대한 자격 부여 방법으로 적절한 방안에 대해서는 '약대 1학년~3학년 과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모두 실습자격 부여(76.8%)', '실무실습에 참가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전국약대연합 및 관련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통과한 자에게 자격부여(14.5%)', '학교 또는 담당 교수가 자체적으로 실습자격이 있는지 평가한 후 실습자격을 부여(7.2%)', '기타(1.4%)' 순이었다. 또한 약대생이 약국 실무실습을 나가기 전 학교에서 실습항목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57명(74.0%)이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14명(18.2%)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6명(7.8%)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무강사 자격기준

약국 실무실습 시 학생을 지도하는 약국의 실무강사에 대한 자격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이(90명; 97.8%)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약국 실무강사의 자격기준 부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는 응답자의 50%가 일정기간 이상 약국에 근무하고, 실무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일정기간 이상 약국에 근무한 자에게 자격부여(27.0%)', '실무강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에게 자격부여(21.3%)', '기타(1.1%)' 순으로 응답이 이어졌다. 실무강사 교육 및 강사에 대한 관리 주체 기관에 대하여 학생들은 '약학대학협의단체(39.2%)', '약사회(30.4%)', '약학대학(24.1%)', '정부기관(6.3%)' 순으로 응답하였다.

###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약국 자격기준

약국 실무실습을 위해 실습약국의 자격기준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87%의 응답자가(80명) 자격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중 97.5%는 실습약국에 대한 Good Pharmacy Practice(GPP) 인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73%는 실습약국의 약사 수가 3명 이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습약국의 한약,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약국화장품 등 취급여부에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과(40명; 51.9%),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37명; 48.1%)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실습약국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63% 이상의 응답자가(52명) 대형 문전약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동네약국을 선호한 학생 수는 6.1%(5명)에 그쳤다.

### 실습지침서(교안)에 대한 인식조사

약국 실무실습을 위해 통일된 실습지침서 마련의 필요성에 대

**Table I** - 실무실습 항목의 타당성 평가(38개 실습항목)(n=92)

실습항목 및 세부내용		타당성 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처방조제 업무	처방전접수및검토	4.3	0.78166	(2~5)
	처방전입력및전산입력	3.6	1.00073	(1~5)
	처방조제및검토	4.4	0.63611	(2~5)
	의료인과의대화	4.3	0.74075	(2~5)
	업무중재수행과기록	4.1	0.80049	(2~5)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업무	복약지도설계및준비	4.5	0.65596	(2~5)
	복약지도수행	4.5	0.73546	(2~5)
	복약지도사후관리	4.3	0.82586	(2~5)
	대화소통기술	4.3	0.77017	(1~5)
의약품정보 업무	의약품정보수집평가및관리	4.2	0.70460	(2~5)
	약품정보및의약품식별정보제공	4.3	0.66758	(2~5)
	의약품정보제공	4.4	0.67739	(2~5)
	의약품사용평가의이해및시행	4.3	0.74634	(2~5)
	약품이상반응모니터링	4.2	0.78757	(2~5)
보험청구 업무	보험제도기초	4.0	0.82882	(1~5)
	청구업무수행	3.9	0.84631	(2~5)
	약국관리프로그램수행	4.1	0.78602	(2~5)
약국경영 및 관리	의약품관리	4.2	0.76124	(2~5)
	시설및장비관리	4.0	0.91894	(1~5)
	문서관리	3.8	0.83790	(2~5)
	인력관리	3.6	0.89005	(2~5)
	운영관리	3.9	0.80049	(2~5)
	약국위생관리	4.1	0.86217	(2~5)
	약국개설및폐업	3.8	1.09623	(1~5)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일반의약품익히기	4.4	0.68277	(3~5)
	일반의약품선택상담	4.5	0.67232	(2~5)
	일반의약품복약지도	4.5	0.63784	(2~5)
한약제제 및 약국품목	약국품목익히기	4.1	0.73712	(3~5)
	한약제제	3.6	0.83498	(1~5)
	건강기능식품	3.9	0.80596	(2~5)
	의약품및의료기기	3.7	0.82778	(1~5)
	화장품	3.5	0.86033	(1~5)
	약국제제	4.1	0.80778	(1~5)
약사의 사회활동	건강상담및수진권고	4.2	0.78757	(2~5)
	재해시약사활동	4.1	0.82260	(1~5)
	재택의약품활동	4.0	0.88813	(2~5)
	학교약사활동	3.9	0.83863	(2~5)
	국민건강증진및지역보건단체활동	4.1	0.76842	(2~5)

\*1='매우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해 67명(72.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6년제 약학대학 시행관련 2+4 교육과정의 실행단계 시범운영 연구를 위해 개발된 약국 실무실습 실습지침서의 세부 실습 항목의 타당성 대한 의견을 매우 타당하지 않음부터 매우 타당함까지를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긴 결과는 다음 Table I에 표시하였다. 처방조제 업무에 관한 실습 중 '처방전 입력 및 전산 입력'에 대한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점수가 낮았다 (3.6점).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 업무, 의약품정보 업무, 일반의약품 투약관리 업무에 관한 실습 항목의 타당성은 모두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보험 청구 업무 수행과 약국에서의 문서, 인력, 운영 관리의 타당성에 대한 점수는 '보통'과 '타당함' 사이로

약간 낮았다. 응답한 약대생들은 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외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과 관련된 실습항목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한 점수가 '보통'과 '타당함' 사이로 다른 실습항목에 관한 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실습항목을 약국에서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이(50명; 54.3%) '아니오'라고 응답해 실습약국에서의 실습항목 이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습약국의 여건 상 실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대한 대안으로 28명(58.3%)은 '누두 설명 및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8명(37.5%)은 '지역 내 다른 실습약국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II - 실습약국 구분마련과 선호 실습약국 형태

		선호 실습약국 형태			$\chi^2$ test (df=1)
		대형 문전약국 N(% row)	기타(의원주변, 동네약국 등) N(% row)	합계 N (% row)	
실습약국 구분필요 여부	예	43 (69%)	19 (31%)	62 (100%)	$\chi^2=3.866$ p<0.05
	아니오	9 (45%)	11 (55%)	20 (100%)	
	합계	52 (63%)	30 (37%)	82 (100%)	

Table III - 실습경험에 따른 실습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실습지침서(교안)의 필요성			$\chi^2$ test (df=1)
		필요하지 않음 N (% row)	필요함 N (% row)	합계 N (% row)	
약국 실무실습 경험여부	있음	13 (41%)	19 (59%)	32 (100%)	$\chi^2=4.486$ p<0.05
	없음	12 (20%)	48 (80%)	60 (100%)	
	합계	25 (27%)	67 (73%)	92 (100%)	

### 실습약국 구분의 필요성과 선호 실습약국

본 설문지 결과 분석 결과, 실습약국 구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특정 실습약국 선호에 대한 응답이 서로 상관성을 보였는데, 실습약국의 자격 기준 중 실습약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62명) 중 43명(82.7%)은 '대형 문전약국'에서 실습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 실습약국에 대한 구분이 필요없다라고 응답한 학생(20명) 중 대형 문전약국에서 실습을 원하는 학생은(45%)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p<0.05$ ) 것으로 나타났다(Table II).

### 실습경험여부와 실습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응답자의 특성 중, 과거 약국 실무실습 경험여부에 따라 실습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실무실습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실습지침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41%) 학생들의 비중이 실무실습 경험이 없는 학생 중 똑같이 실습지침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20%) 비중의 두 배 정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카이 제곱 테스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5$ )(Table III).

###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약대생 실무실습 중 약국 실무실습 시행에 대하여 현재 약학대학 재학생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이 실무실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무실습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된 약대생의 약국 실무실습에 대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학대학 학생들은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무 강사와 실습약국과 같은 실습환경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무 강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97.8%) 실무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실무 강사의 자격 부여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응답자가(71.3%) 실무강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약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험은 물론 실무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대답해 현장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강사로서의 교육 능력(teaching skill)을 갖추고 있어야 실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 학생들은 각 약학대학 별로 실무강사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해야 생각한 반면, 60% 이상의 응답자가 약학대학협의단체 또는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실무강사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실무강사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공식기관의 통일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실무강사 선정 및 교육에 대해 각 약학대학은 대학이 속한 지역약사회와 실무강사 풀 구축을 위한 협의를 통해 실무강사 인력 확보 및 교육에 대한 사전준비 작업에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약국 실무실습을 위해 실무강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던(97.8%) 것에 비해, 응답자들은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생 자격기준 조건에는 다소 관대한 태도를(71.7%) 보이고 있다. 실습생에 대한 자격기준 부여방법에 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학대학 교과과정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모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으며, 이는 실제로 약학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모든 학생이 실무실습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약학교육에서 실습생에 대한 실무실습 참여기준과 같은 규정이 정해지게 되면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약대생들은 약학공용시험을 통해 실무실습을 참가하는데 충분한 지식, 기능, 태도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받은 후 장기 실무실습 자격을 부여해 환자와 사회에 대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게 된다. 실습생약국에서의 실무실습이 제

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실무강사, 즉 교육자에 대한 자격 및 역량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실습생)에 대한 역량도 학습의 성공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약학대학들은 이러한 약국 실무실습의 질 제고와 더불어 환자와 사회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는 실무실습을 위해 노력하고 실습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약국 실무실습의 현장에 관하여서, 본 연구의 응답자 대부분이 '대형 문전약국'을 선호하였고, 특히 실습약국에 대한 구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학생들이 '대형 문전약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 문전약국은 그 외 약국과 비교하여 다양한 약품구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약학 교과과정의 개국약국실습 방향에 관한 연구'(1999)<sup>6)</sup> 결과에서 약학대학장과 개국약사들이 실습장소의 선정기준으로는 다양한 약품구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앞서 진행했던 실무실습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실습자들(17명)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습 장소(대형 문전약국 또는 그 외의 약국)에 따른 실무실습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별 차이가(6명/8명 vs. 5명/9명) 없었다. 따라서 향후 약대생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학생 배정 시 특정 약국, 특히 막연히 대형 문전약국에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국에서 실습지침서에 수록되어 있는 실습항목을 모두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습생들이 어느 실습약국에 배정되더라도 처방조제 업무는 물론 일반의약품 판매, 약국품목(약국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약, 의료기기 등)에 대한 학습이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기존에 약국 실무실습 경험이 있는 약대생들이 실무실습 경험이 없는 약대생들보다 실습지침서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한 제시한 시범사업 연구 내용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한 실무강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지침서의 수행정도를 평가한 결과, 표준화된 실습지침서가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8개의 실습항목 중 16개 항목만이 실습이 비교적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실습이 미진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up>8)</sup> 이는 약국 실습환경과 맞지 않는 실습지침서의 개발, 실습약국의 실습 여건 미비, 또는 실무강사의 지도능력 및 학생의 학습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무강사와 학생의 실습지침서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실습지침서에 따른 표준화된 실무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두 실습가능하고, 실무강사의 지도능력과 학생의 학습능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즉 학습내용, 지도자, 학습자를 모두 고려한 실습지침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약국 실무실습을 위한 실습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은 '처방조제업무',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 '의약품정보 업무', '약사의 사회활동'에 관련된 실습항목의 타당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청구업무', '약국경영 및 관리', '한약제제 및 약국품목'과 관련된 실습항목에 대해 실습항목으로서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는데, 따라서 동 연구결과를 통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은 약국 실무실습을 통해 주로 임상과 관련된 항목 즉, '처방조제', '복약지도', '의약품정보제공' 등에 포커스를 맞춘 실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복약지도 및 투약관리업무와 '약사의 사회활동'로 나타났다. 약학대학 재학생의 경우 약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의약품 복약지도에 대해 실습항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는 약국에서 실무실습 시 복약지도에 대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습항목으로서 그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약국 실무실습을 통해 임상관련 분야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대생들이 약국 실무실습을 통해서 임상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약사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실습항목 개발을 통해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충실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무작위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별, 학교별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6년제 학제 대상이 아닌 현재 4년제 학제 하에서 교육을 받은 약학대학 재학생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무실습에 대한 관심도와 지식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약학교육에 실무실습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약대생 실무실습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위해서는 실무교육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지고, 실습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약학대학과 실무실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실무실습 시행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FIP Statement of Policy on Good Pharmacy Education Practice Approved by FIP Council in Vienna in September (2000).
- 2) 홍후조 외 : 교육인적자원부: 약사(藥事)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 연구 (2004).

- 3) 홍명자 : 개국 약사가 바라는 임상약학 교육. 한국임상약학회지 **3**, 105 (1993).
- 4) 오즈컨설팅 : 약대학제연장 타당성 검토를 위한 약사수행직무 및 수행요건 연구 (2004).
- 5) 오즈컨설팅 : 신입약사 조제역량 분석 (2004).
- 6) 김성현, 오정미 : 약학교과과정의 개국약국실습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약학회지 **9** (1999).
- 7) 정규혁 외 : 약학대학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 연구 (2008).
- 8) 한국연구재단 : 6년제 약학대학 시행관련 2+4 교육과정의 실행 단계 시범운영 연구 약국 실무실습 I, II 교안 (2010).